

차재 소프트웨어:

Jatco의 “Integrity” 채택 이유는, ISO 26262 대응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원화

PTC는 2013년 5월, 트랜스미션 대기업 Jatco가 ALM 툴 “Integrity”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ISO 26262 대응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Integrity이지만, Jatco의 주요 채택 이유는 글로벌한 차재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였다.

글: 朴尚洙 | 출처: MONOist

번역: 이채원 · 카이젠컨설팅

자동차 전용 기능 안전 규격 ISO 26262의 대응을 위해 주목되고 있는 요건관리나 구성관리, 변경관리 등에 따른 개발 프로세스의 Traceability를 확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ALM(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툴이다.

이 ALM 툴 중에서도, 국내 대기업 티어 1 공급자에 채택이 늘고 있는 것이 PTC의 “PTC Integrity (이하, Integrity)”이다. 2011년 5월에 PTC가 MKS를 인수함으로써 “MKS Integrity”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 후도 순조롭게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2013년 5월에 트랜스미션 대기업 Jatco가 채택했다 라는 발표가 있었다. (관련기사: Jatco,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으로 PTC의 ALM 툴 “Integrity”를 채택)

경합과 비교 평가로 툴 도입이 연기되다.



PTC JAPAN의 富山義明씨

Jatco에서 PTC에, Integrity의 도입을 위한 평가 의뢰가 있던 것이 2012년 봄쯤의 일. 같은 년도 8월에는, 평가 작업에 필요한 데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세한 흐름 등을 포함시킨 정식 의뢰가 들어왔다. 데모 시스템을 구축하고, Jatco의 환경에 적용시킨 것을 마무리 한 것이 10월이다. 그 후, 경합 툴 벤더와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 졌지만, 실제로 비교 평가가 시작하기까지 또 1개월 이상 기다리게 되었다.

PTC JAPAN의 PLM/ALM 사업에서 Integrity 영업 기술 부장을 맡고 있는 富山義明씨는, “이것은 경합 툴 벤더에 의한 데모 시스템의 구축과 내장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Integrity는, 요건관리나 구성관리, 변경관리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툴로 실현하는 『싱글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데모 시스템의 구축에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경합하는 타사의 툴 벤더의 경우, 각 관리 기능에 대응하는 다른 툴을 비교하여 데모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 타사 툴과 비교 평가 시에, 우리가 기다린 사례는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라고 말했다.

Jatco 의 주요 채택 이유는 ISO 26262 대응은 아니다?

Jatco는, 차재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에 의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파일 서버와 일반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을 비교하여, 부서마다 대응해 왔다고 한다. 물론, 국내와 해외의 개발 거점의 연계는 실현할 수 없었다.

이번 Integrity의 도입을 통해, 차재 소프트웨어에 관한 데이터 관리에 대해, 국내외의 개발 거점을 포함한 글로벌의 일원 관리를 실시하고, 개발의 재 작업 감소 및 효율성 향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Integrity를 사용한 Pilot 프로젝트에 의한 시범 운용을 하고 있고, Jatco의 개발 환경에 Fitting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Integrity는, 요건관리나 구성관리, 변경관리를 단일의 도구로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ISO 26262 대응에서는 특히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Jatco의 경우, “주요 채택 이유는, 글로벌에 의한 차재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였다. 물론, ISO 26262 대응을 위한 Integrity의 활용도 도입의 로드맵에는 들어있다” 라고 말한다.

전동 Power Steering이나 Break System의 공급자의 경우, ISO 26262의 안전 요구 레벨에서 최고인 ASIL-D가 요구되어 온 일도 있어, 그 동안의 업체들의 Integrity의 채용의 가장 큰 이유는 ISO 26262 대응이었다. 하지만, 트랜스미션은 ASIL-D보다도 안전요구 레벨이 낮기 때문에, Jatco에서는 먼저 글로벌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를 우선시 하였다고 한다.

원문 | <http://monoist.atmarkit.co.jp/mn/articles/1306/06/news017.html>